

2023-1 클라시쿠스 문: 삶과 꿈 소논문
돈키호테에 나타난 황금 세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학과 202321547 이민영

I. 들어가며

16세기 스페인은 국내와 세계상업의 개발을 통해 봉건제적 국토 분할의 문제와 지역 독립주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¹⁾. 그러나 스페인은 가톨릭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해 점점 기세가 기울어지게 된다. 스페인의 가톨릭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권력이 오래 유지되며 가톨릭은 부패와 탐욕에 빠졌다. 그와 동시에 전쟁에서 승리하여 유례없는 황금기를 누린 적이 있던 스페인은 다시 영광을 찾기 위해 전쟁에 재화를 쏟아부었고, 이에 따라 국가 부도가 야기되었다. 결국 무적함대가 영국군에 패배하며 스페인의 영광은 빠르게 몰락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스페인의 몰락과는 대비적으로 문학과 예술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서 탄생한 문학 중 하나가 바로 미겔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다.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의 16세기를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돈키호테에는 이러한 스페인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세르반테스는 이 책 안에서 그 당시 스페인 사회를 철기시대라고 칭하며 황금세기라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그 황금세기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르반테스가 이 책에서 스페인의 사회를 철기시대라고 칭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가 생각한 황금세기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의문으로 필자는 이 글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황금세기에 대해 돈키호테가 언급한 부분을 읽으며, 이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와 크게 닮아있다고 생각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의 관점에서도 이 주제를 바라보기로 했다.

II.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

마르크스의 시점으로 황금세기를 보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역사 발전 과정이 ‘원시 공산사회³⁾-고대 노예제⁴⁾-중세 봉건제-근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았다.

돈키호테의 배경이 되는 16세기의 스페인은 중세 봉건제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에, 중세 봉건제의 형태부터 공산주의 사회의 형태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

1) 박정원, 「돈키호테, 「황금시대」를 그리다」, 『진보평론』, 제70호, 뉴 래디컬 리뷰, 2016 참조.

2) 김민태, 「『돈키호테』에 반영된 세르반테스의 시대정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스페인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참조.

3) 원시적인 공동체 사회의 형태로, 수렵과 채집을 중심으로 생존했다. 함께 사냥하고 함께 생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와 계급, 그리고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이다.

4) 수렵과 채집으로만 살아남았던 원시 공산사회와 달리, 농사를 할 수 있게 되며 농경사회로 발전했다. 농경사회가 됨에 따라 농사가 가능한 사람과 가능하지 않은 사람 간의 빈부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계급이 생겨났다. 이러한 권력관계가 지속되며 노예제가 확립되었다.

졌다. 중세 봉건제는 게르만족에 의해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전성기를 겪던 프랑크 왕족이 내분으로 인해 멸망하며 혼란을 겪을 때 등장했다.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군사 계급은 성장하고, 예속 농민들이 발생하여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에 기초한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권력이 생긴 지방의 지주들은 기사들에게 자신을 보호해주면 자신의 땅에서 권력 행사를 허가해준다는 쌍무적 계약을 제시하였고, 기사 계급은 부상하게 된다. 또한 가톨릭의 영향이 강해져 교황이 권력의 중심축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십자군 전쟁에서 패배하고 흑사병이 유행하며 일손이 부족해져 예속 농민, 즉 농노의 지위가 향상되며 농민과 지주 계급 간의 투쟁이 발생하였다⁵⁾. 이 계급 간 대립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중세 봉건제의 특징이다.

사회가 발전하며 상업이 등장하고, 공장이라는 새로운 생산수단이 생기게 되면서 부가 땅을 가진 지주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다. 이 상업과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계급이 탄생했고, 이들은 신의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이성을 제시하며 혁명을 일으켰다.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서 이성의 사회가 열렸고,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작이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신권력이 된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노동력이 계속 필요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억압, 착취, 소외당하며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가 필연적으로 몰락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서 자본가인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간의 투쟁이 발생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며 공산사회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 단계인 사회주의 사회가 찾아온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해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독재하는 사회가 된다. 계급과 국가, 그리고 사유재산은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이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인 공산주의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계급도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분배받기에 사유재산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소유했던 생산수단이 공유되며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소되고,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는 사회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는 이상사회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몰락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찾아왔어야 한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등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형태가 일부 나타났지만, 모순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⁶⁾.

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6) 두산백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9555&cid=40942&categoryId=31645>,
 2023.06.21. 접속.

Ⅲ. 돈키호테에서 말하는 황금세기와 철기시대

1. 돈키호테에서 말하는 황금시대

돈키호테는 11장에서 염소치기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서 오랜만에 배부르게 식사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져 황금세기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는다.

“아, 정말로 행복한 시절, 행복한 세상이 있었으니 옛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을 일컬어 황금세기라 했노라. 그 황금이라는 것이 우리 철기시대, 돈타령하는 시대처럼 값이 비싸서 좋아하고, 운 좋게 쉽게 구할 수 있어서 ‘황금세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사람들은 ‘네 것’ ‘내 것’이라는 이 두 단어조차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야. 그때 그 성스러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공동소유여서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느라 애써 일할 필요도 없고…(중략)…세상 모든 것이 그 때는 다 화평하고, 친절하고, 조화로웠어…(중략)…정의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지켜져 지금 혼한 난장판처럼 배경이니 잇속이니 하는 것들이 공정성을 흐리고 못되게 하는 짓들을 감히 못했지.”⁷⁾

이 장면에서 돈키호테는 황금세기가 모든 것이 공동소유였으며 화평하고, 친절하고, 조화로웠고, 정의가 글자 그대로 정의로 작용하는 사회였다고 말한다. 또한 악덕이 없고 여성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고 살 수 있었던 사회라고도 서술한다. 이러한 긍정적 서술로 볼 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화자로 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황금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돈키호테에서 말하는 철기시대

세르반테스는 황금세기를 자신의 지향점으로 보여준 것과 달리, 당대 스페인은 철기시대, 돈타령하는 시대라고 서술하며 스페인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 당시 스페인 사회를 철기시대, 돈타령하는 시대라고 칭한 것은 당시 스페인 사회가 부패로 인해 권력과 돈만을 탐하고 있었고, 이러한 부패로 몰락하고 있었으나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무기들로 전쟁을 지속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즉, 돈타령하는 시대는 부패로 권력과 부를 탐하는 사회를 비유한 표현, 철기시대는 부를 위해 일으킨 전쟁에서 쓴 무기들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Ⅳ.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 이론으로 보는 황금세기와 철기시대

1. 황금세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 이론으로 볼 때, 황금세기는 역사 발전 5단계의 최종 단계이자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모든 것이 공동소유이며, 여성과 고아와 가난한 사람도 존중받고 살 수 있었다는 서술을 볼

7) 미겔 드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민용태 역, 창비세계문학, 2005, 144-146쪽.

때 계급 역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추측된다. 또한 날마다 먹을 것을 구하느라 애써 일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황금세기가 풍요로운 사회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와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산사회에서는 생산력이 극도로 발전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생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돈키호테의 서술만을 보면 원시 공산사회의 형태와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원시 공산사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시 공산사회는 생존을 위해 함께 사냥했고, 같이 잡은 것은 그날 같이 나눠 먹는, 사유재산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 황금세기는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채집하는 것이 아닌, 애초에 자연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계급과 사유재산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에 가깝다. 공산주의 사회 역시 생산력이 극도로 발달하여 필요한 것이 모두 제공되어 굳이 계급과 사유재산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에 속하므로 황금세기는 공산주의 사회와 더욱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2. 철기시대

철기시대, 다시 말해 돈키호테의 배경이 된 당대 스페인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 이론으로 볼 때 중세 봉건제와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과도기를 보여주는 요소로는 먼저, 가톨릭이 있다. 스페인은 이슬람이 오래 지배하고 있어 종교적 순결성에 대한 집착을 보였고, 또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스페인을 통일할 수단이 필요해 가톨릭에게 종교 재판소라는 막대한 권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제공받은 가톨릭은 중세 봉건제 시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톨릭이 몰락하게 되며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돈키호테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제가 등장하며 아직 가톨릭이 몰락하지 않았다는 것, 즉 아직은 근대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제가 권력을 휘두르는 장면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 중세 봉건제의 전성기가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보여준다.

또 다른 요소로는 남아있는 봉건적 신분제도를 들 수 있다. 돈키호테의 4장에는 농부와 별을 받고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농부는 기사 복장을 한 이상한 사람이 자기 얼굴에 창을 들이대자, 순간 죽었구나 생각하고 공손하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말했다.

“기사 나리, 지금 제가 별주고 있는 이 아이는 제 하인으로, 제가 이 근방에서 기르는 양 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후략)”⁸⁾

8) 미겔 드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민용태 역, 창비세계문학, 2005, 74쪽

이 부분에서 먼저 농부가 기사 복장을 한 돈키호테가 창을 들이대자 태도가 공손해진 것을 보면, 기사 복장을 한 사람을 이상한 취급을 하더라도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등 기사라는 직업이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인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신흥 자본가인 부르주아 계급을 제외하면 다른 이들을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 책에서 ‘농부’와 ‘하인’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직은 봉건적 신분제가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돈키호테에서 말하는 철기시대는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중세 봉건제가 스러져가고 있으나 아직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완전하게 찾아오지는 않은 과도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V. 나오며

필자는 『돈키호테』를 읽으며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화자를 통해 말한 황금세기에 대해 의문이 들어 이를 분석하게 되었으며,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 이론과 연관지어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먼저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 발전의 다섯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했다.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는 원시 공산사회-고대 노예제-중세 봉건제-근대 자본주의 사회-공산주의 사회로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앞의 네 단계는 모두 이미 존재했던 사회나 존재하고 있는 사회를 나타낸 것이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사회였다.

다음으로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 발전의 다섯 단계는 돈키호테가 말하는 황금세기와 당대 스페인, 즉 철기시대에 적용하여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스페인 사회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역사 발전 3단계인 중세 봉건제에서 4단계인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의 과도기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으며 황금세기의 경우에는 역사 발전 1단계인 원시 공산사회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라고 주장한 공산주의 사회와 더욱 유사점이 많아 공산주의 사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이 결론에 따라 필자는 세르반테스가 황금세기를 보여주며 어떤 점을 말하려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그 결과, 필자는 세르반테스가 황금세기를 과거에 존재하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대상이 아닌 나아가야 하는 미래로 보았다고 판단했다. 돈키호테가 황금세기를 언급하는 장면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행복한 시대라고 하지만,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단계 흐름에 대입해서 보면 황금세기는 철기시대를 거치고 나서 도달하는 단계이다. 또한 이 단계는 이상사회, 즉 전에 존재한 적 없었던 사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회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필자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본 돈키호테의 황금세기를 통해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 보여주려 했던 황금세기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참고문헌>

- 미겔 드 세르반테스, 『기발한 시골 양반 라 만차의 돈 끼호테 1』, 민용태 역, 창비세계문학, 2005.
- 박정원, 「돈키호테, 「황금시대」를 그리다」, 『진보평론』 제70호, 뉴 래디컬 리뷰, 2016.
- 김민태, 「『돈키호테』에 반영된 세르반테스의 시대정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스페인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 강성호, 「마르크스의 역사발전론 연구 경향과 문제점」, 『강원사학』 9권, 강원사학회, 1993.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
- 두산백과, <프롤레타리아 혁명>,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9555&cid=40942&categoryId=31645>, 2023.06.21. 접속.